

RC, 화학기업의 사회적 책임 재해석

이윤추구 넘어선 기업 존재의 이유 ... 인간다운 삶 위한 아름다운 배려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은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UN 인간환경회의(일명 스톡홀름회의)에서 시작됐다.

1992년 브라질의 리�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UN회의에서 국가공동체의 공통목표로 제정되면서 대중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기업에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무조건적인 매출, 수익 극대화보다는 환경, 사회적 책임, 종업원에 대한 배려 등을 모두 포함 <전체적인 Well-Balance가 이루어진> 성장이 필요하다는 일종의 경영철학이다

특히, 화학산업은 다른 Industry와 달리 대량의 가연성 또는 폭발성 물질을 주로 취급하면서 고온, 고압 등의 환경에서 물질에 화학적 변화를 주기 때문에 화재, 폭발 등의 재해가 발생하기 쉽다.

또 설비의 파괴에 따른 직접적인 재산과 인명상의 손실이 막대하고, 주위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설비의 복구기간이 길기 때문에 파급효과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나 1980년대까지 기업의 최대·최고의 목적은 이윤추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환경이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낭비요소로만 인식됐다.

기존사고의 전면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이 인디아 보팔(Bhopal)시 Union Carbide의 살충제공장 독가스 유출 사고이다.

Responsible Care의 8대 원칙

구 분	실천방향
기본방침 (Guiding Principles)	참여기업의 최고경영자가 RC 기본방침 이행을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서명한다.
표제와 로고 (Name & Logo)	RC의 개념을 분명하게 형상화할 수 있는 로고와 표제를 채택하고, RC 추진을 약속한 기업에게 사용권을 주어 대국민 홍보에 활용한다.
실행지침 (Code & Guides)	환경보건안전의 지속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RC 추진의 약속을 실천하는 기업을 위한 실행지침 또는 체크리스트를 제정한다.
지표개발 (Indicators)	RC 추진에 따른 개선과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획기적인 측정지표를 개발한다.
의사소통 (Communications)	대내외에 걸친 이해당사자들과 환경보건안전문제에 대한 대화절차를 마련·유지한다.
교류활성화 (Sharing)	기업의 최고경영자나 RC의 협력기업들이 약속이행에 관한 경험을 교환하고 나눌 수 있는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한다.
장려 (Encouragement)	모든 기업이 RC에 참여하고 올바르게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숙고하고 이를 독려한다.
검증 (Verification)	참여기업에 의해 수행한 측정 가능한 RC 실행요소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제정한다.

1984년 12월3일 인디아 보팔에 있는 UCC의 살충제공장에서 40톤에 해당하는 메틸 이소카보네이트(Methyl Isocarbonate) 가스가 대기에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나 약 2000명의 사망자와 10만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가축과 곡식 등 주변 환경에도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주었다.

이에 따라 1985년 캐나다 화학공업협회는 RC(Responsible Care)이라는 일종의 Community를 출범시켰다.

RC는 화학산업계가 주도해 만들어진 환경안전보건 통합시스템으로 화학산업의 지속적 장기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관심이며, 환경과 지역사회·종업원의 행복을 위한 자발적인 활동을 의미하고 있다.

1988년 국제화학산업협의회가 RC 활동을 주관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해 1990년 RCLG(Responsible Care Leadership Group) 결성, 1992년 리우회의에서 Agenda21의 Action Plan으로 지정됐다.

그밖에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IFCS(International Federation of Classification Societies),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에서 화학산업과 관련한 의제가 발생하면 CMA (Chem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CEFIC(European Chemical Industry Council) 등과 협력해 세계 각국의 화학산업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인 NGO활동 전개하고 있다.

한국은 1992년 석유화학공업협회가 RC를 도입키로 결정하고 1998년 RC공동추진위원회와 Working Group 구성했다.

1999년 결실을 맺어 KRCC(Korea Responsible Care Council) 창립했으며 현재 석유화학기업 37사와 외국계 화학기업 20사 등 총 71사가 가입돼 있다. <심주영 기자>

<화학저널 2004/07/30>